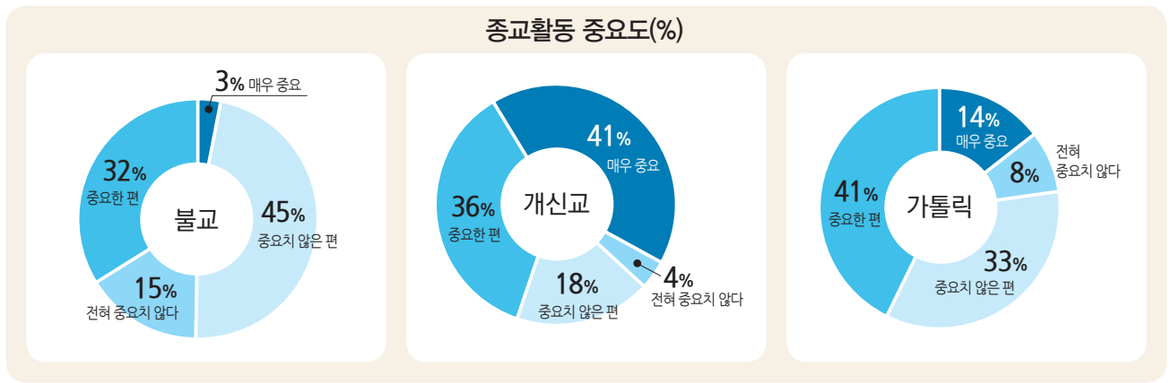
“종교활동 중요한가” 불자 35%만 “그렇다”

한국리서치 종교인식조사서
‘종교 활동 중요성’ 설문에
개신교 신자가 가장 긍정적
불자15% ‘전혀 중요치 않아’
법회 변화, 핵심신도 양성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당신의 삶에서 종교활동이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불자의 35%만 “중요하다”고 답해 신앙 공동체로서 유대감과 결속력 증진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는 12월 2일 ‘2025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을 발표했다.

한국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22번의 조사를 통해 올해 종교인구를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무종교인(종교 없음)은 전체 응답자의 51%로 종교인을 상회했다. 종교인 중 20%는 개신교인이었으며 불자는 16%, 가톨릭인 11%로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조사와도 동일한 결과로 한국리서치는 “종교 인구 비율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종교계의 새로운 신자 유입 노력이 이탈을 상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종교활동 참여 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종교 인구 중 37%가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한달에 2~3번 참여하는 사람은 11%, 한달에 1번 참여하는 사람은 12%로 나타났다. 한번도 참여 않는 사람은 18%, 한달에 한번 미만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21%이다.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자의 비율은 종교마다 격차가 컸다.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자는 개신교는 63%로 가장 많았고 가톨릭 34%, 불교 3% 순이었다. 보고서에도 “예배 중심의 개신교·가톨릭과 달리 불교는 개인 수행의 비중이 높아 종교활동의 개념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종교활동의 빈도를 신앙의 척도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근대종교 개념이 강하게 형성된 한국의 개신교와 가톨릭은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경성종교(硬性宗教)로 분류돼 인구 등의 집계가 용이하다.

반면 집단의 심성·철학·가치관·문화로서 자리매김하는 연성종교(軟性宗教)의 특징을 갖는 불교는 인구, 신앙이 명확하게 조사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게 종교학계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종교활동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은 77%, 가톨릭인은 55%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자의 35%만이 “중요하다(매우 중요 3%·중요한 편 32%)”라고 답한 것은 불교계가 곱씹어봐야 할 문제다. 불자의 경우 15%가 “종교활동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해당 비율은 3대 종교 중 가장 높았다.

이에 한국리서치는 “이는 불교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불교 신자 간의 유대감이나 공동체가 약화되 가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사에서는 종교활동(법회·예배·미사)에 매주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종교활동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종교활동에 매주 참여하는 사람 중 96%가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중 57%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종교활동에 월 1회 미만으로 참석하거나 아예 참석 않는 사람들 중 22%만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현대 한국인의 라이프 사이클이 ‘주간’으로 변화한 만큼 전통적 음력법회가 아닌 일요법회 등 정기법회의 변화를 줘 신도 소속감과 충성도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 조직화 및 교육화된 신도 양성 방안도 종단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한국리서치는 종교인구 비율은 정체돼 있고 개종율도 낮아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위기의 징후도 확인됨을 언급했다.

한국리서치는 “겉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종교인구 고령화가 전체 인구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젊은 신자의 수가 많지 않고 젊은 신자의 종교활동 참여도와 중요성 인식이 낮아 믿음의 ‘강도’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 수를 늘리는 것, 특히 젊은 층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종교계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맛있는 김치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조계사는 12월 3일 ‘도농상생 김장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봉은사는 12월 3일 경내에서 김장김치 1만포기를 담갔다.

조계사, 12월 4일 전달식
1500박스 지역 내 이웃들에
봉은사도 12월 3일 1만 포기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12월 4일 경내 백송 앞마당에서 ‘도농상생 김장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김장김치는 3톤(2kg, 1500박스)으로 조계사 신도회가 1000만원, 해남군이 3000만원, NH농협 종로금융센터가 500만원을 기부해 마련됐다.

이날 조계사는 종로구청 사회복지관에서 선정한 지역 내 거주 취약계층에 1200박스, 종로구 청소년 보육원인 ‘선덕원’에 250박스, 종로구 주민소통센터에 50박스의 김치를 각각 전달했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지난해 김장 날은 영하 10도에 눈도 와서 애를 먹었다”며 “올해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신도들을 배려해 김장은 해남군이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사부대중 모두의 정성이 모아지면 추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맛있는 김장김치를 통해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도 12월 3일 경내 주차장에서 ‘불기 2569(2025)년 봉은사 김장축제’를 열고 1만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봉은사는 이날 담근 김장김치 중 약 2000kg(1000포기)을 판교노인종합복지관과 대치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법인 봉은 산하 19개 복지시설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김내영 기자 · 송정인 수습기자

“故 뚜안 사망 진상 규명하라”

조계종 사회노동위, 11월 30일
광화문 일대 삼보일배 오체투지



“더 이상 죽이지 말라, 강제단속 중단하라! 우리 친구 뚜안을 살려내라!”

정부 합동단속으로 지난 10월 28일 사망한 베트남 출신 뚜안 씨의 명복을 빌고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중지와 인권 향상을 발원하는 삼보일배 오체투지 행진이 서울 광화문에 이어졌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11월 30일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오체투지를 개최했다.〈사진〉

故 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공대위 ‘사람이왔다’가 함께한 이날 오체투지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한수스님, 원경 스님, 혜찬 스님, 보현 스님, 혜도 스님과 희생자 故 뚜안 씨 유족, 이주노동자들,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위원장,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장 등이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에서 정부서울종합청사까지 약 1.2㎞ 거리를 오체투지로 행진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성추행 A교수 직위해제…중징계 받는다

법인 이사회, 12월 2일 결의
부정행위 B교수도 동일 의결
감사에 법성 스님 재선임

최근 성추행으로 교내 안팎에서 문제가 된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A교수와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스포츠문화학과 B교수가 직위해제되고 중징계 의견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은 12월 2일 제363회 이사회를 열고 교원 징계의결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이 같이 결의했다.

A교수는 지난 2023년 학과 동계답사 뒤풀이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7월 학교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교원인사실에 이첩됐으며 8월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유산학과 1·2·3대 학생회는 학내 대자보 등을 통해 해당 교수가 지속적으로 위계를 이용해 성희롱 등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 특성상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원 진학과 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신설학과’의 첫 세대라는 책임감은 학생들의 입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11월 25일에는 불교대학 교수들도 대자보를 통해 “모든 형태의 성희롱, 성추행, 위계적 폭력은 교육자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피해학생들과 연대하며 안전한 대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원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해 가장 엄정한 수준의 징계를 즉시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B교수는 연구비와 교비 관련 부정행위로 문제가 돼 직위해제와 중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교수의 징계 수위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교원징계위원회에는 징계 의견을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로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성(性) 비위 사건은 30일 이내로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임원 선임에서는 법성 스님을 감사로 재선임했으며, 내년 4월 24일 임기만료 예정인 도림 스님의 후임 선임은 차기 이사회로 이월하기로 의결됐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1월 제236회 정기회에서 도림 스님의 후임으로 재안 스님(내소사 주지)과 성원 스님(조계종 문화부장)을 복수 추천했다.

신중일 기자

인도 네팔 성지순례 10일
2월01일 출발~2월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인도 문화탐방 9일
인도의 주요 관광지만 가는 일정입니다.
2월11일 출발~2월19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인도 최고의 조각상)-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350만원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3월25일 출발~3월29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4월01일 출발~4월10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3월21일 출발~3월26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운남성 성지순례 7일
아름다운 운남성의 곤명-대리-
여강(옥룡설산)-샹그릴라 성지순례
4월06일 출발~4월12일 도착
▶ 동참금 : 23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